

# 에도 그림책으로 놀이

— 『잘 알고 계시는 상품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江戸の絵本で遊ぶ — 『御存商売物』  
をどう読むか

저자 | 쓰다 마유미(津田真弓)

번역 | 손정아(경북대 일어일문학과)

▶ 이 논문 번역은 [아카루트 2020년 해외논문번역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저작권은 아카루트에 있습니다.  
인용하실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DBpia



아카루트

## 에도 그림책으로 놀기 -『잘 알고 계시는 상품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1) (江戸の絵本で遊ぶ - 『御存商売物』をどう読むか)

쓰다 마유미(津田眞弓)

\*번역: 손정아(경북대 일어일문학과)

### 1. 들어가며



图1 山東京山『室育婿の入船』一丁表、国会図書館蔵

(그림1)

이 글의 목적은 고전 원본을 보는 즐거움을 전하고자 함이다. 당시 출판 사정을 흥미롭게 그려낸 에도시대(江戸時代)의 책을 펼쳐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에도 사람들과 시야를 공유하는 즐거움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후에 산토 교덴(山東京傳)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지는 젊은 우키요에(浮世絵) 화가 기타오 마사노부(北尾政演)의 『잘 알고 계시는 상품들』이다. 1782년 정월 에도에서 간행되었다. 이 작품을 감상할 때는 당시 독자처럼 어깨에 힘을 빼고 즐기는 것이 제일이다(그림1). 작자 교덴의 동생이 자신의 작품에서 이를 나타내고 있다. 정월, “애야, 좋은 새해 선물을 받았어.”라고 하며 받은 것을 고타쓰에 들어가 아이와 함께 읽는다. 이런 종류의 그림책은 새해가 되면 빠지지 않는 일가 단란의 즐거움이었다.<sup>2)</sup>

『잘 알고 계시는 상품들』이라는 제목은,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시판되고 있는 책과 인쇄물을 뜻한다. 책방 상품들을 의인화하여 당시 에도에서 어떠한 책이 주목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구사조시(草双紙)」라는 에도에서 제작되던 그림책이 있었는데 그중 문학사에서는 「기묘시(黄表紙)」로 분류된 양식이 있다. 이러한 출판물이 등장하는 『잘 알고 계시는 상품들』은 18세기 말 출판 사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장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기묘시라는 장르에 대해서도 잘

1) 津田眞弓, 「江戸の絵本で遊ぶ - 『御存商売物』をどう読むか」, 『出版文化史の東西』, 慶應義塾大学出版会株式会社, 2015, pp.163-195.

2) 산토 교잔(山東京山) 『무로소다치 무코노 이리부네(室育婿の入船)』 1814, 1장 앞면.

알려준다.

그런데다 필자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작자가 「게사쿠(戯作)」— 장난으로 짓는, 시시한 작품 — 에 어울리게, 지적인 상식이 뒷받침하면서도 바보스러움에 목숨 걸고 몰두한다는 점이다. 작자의 기지에 박수를 보내는 한편, 웃음을 자아내는 장치에도 흥미가 솟는다. 웃음은 독자와 공감 없이는 성립하지 않기에, 그 너머에는 동시대의 상식이 존재하고 있다. 요컨대, 본 작품을 읽을 수 있으면 당시 세상과 문화를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일본에서 행해져 온 고전 향수의 바람직한 모습도 알 수 있어 일본 문화를 에도시대부터 살펴볼 수 있는 알맞은 재료가 되었다.

저명한 이 작품에 대한 주석 연구가 많이 있다. 특히 주석서의 결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스즈키 도시유키(鈴木俊幸)의 『에도 책 모음(江戸の本づくし)』(헤이본샤 신서, 2011년, 이하 「스즈키 책」)에서 이 작품의 구석구석까지 살펴볼 수 있다. 더구나 그림의 자세한 설명은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있고 작자가 그림과 문장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표현 하나하나를 열거하는 무척 단순한 방법에 의한 것이지만 구성 요소가 의미하는 것, 그림과 문장을 표현하는 아이디어와 작품의 구조를 명확히 밝혀냈다. 그것은 분명 구사조시라고 불린 지면에 그림과 문장이 공존하는 이 장르와 작자 마사노부(후에 교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까지 알 수 있게 이끌어 준다.

## 2. 구사조시라는 장르

우선, 구사조시라는 장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가장 큰 특징은 그림과 문장이 지면에 혼재한다는 것이다. 에도시대 소설류의 읽을거리는 일반적으로 삽화 그림이 들어간 그림책의 형태를 취하고 있던 했지만 그림과 글자는 지면에 따로 배열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카기 겐(高木元)이 「구사조시를 연구한다는 것(草双紙を研究すること)」(『에도문학』 35호, 2006년 11월)에서 말했듯이, 17세기 중반에서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약 이백 년 남짓 「근세 근대를 통틀어 가장 긴 기간에 걸쳐 가까이 두고 사랑받아 온 장르」라는 역사를 지냈다. 또한 스즈키 주조(鈴木重三)가 「에도 소설 후기소설류 도표(江戸小説後期小説類図表)」



图2 北尾政演『御存商売物』下卷表紙、以下全て、東京大学総合図書館霞亭文库蔵

(그림2)

구사조시의 역사를 조금 풀어보면, 그 출현은 17세기 중기, 1661~81년이라고들 한다. 처

(『에혼과 우키요에』 미술출판사, 1979년)에서, 1751년 이후 각 장르 간행 점수를 도표로 보여주는데 정월마다 새롭게 제작된 구사조시는 다른 장르에 비해 간행 점수와 발행 부수가 현저하게 많았다. 책 대여점에서 책을 빌려 읽기보다 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형상은 19세기가 되면 표지에 멋진 니시키에(錦絵, 다색 판화 우키요에)를 사용하고 분량도 많아지게 되지만, 『잘 알고 계시는 상품들』의 시점에서는 아직 무지의 표지에 「에다이센(그림 제철\_역자)」이라는, 서명 등을 인쇄한 종이를 붙인 검은 것이었다(그림2). 내용도 재생지 — 당시의 재생지. 잿빛의 조악한 종이를 다섯 매, 실로 봉철한 것이었다. 이 다섯 매 즉 다섯 장(丁)을 한 권으로 세는 것이 기묘시의 일정한 형태가 되었다.

음에는 아카혼(赤本)이라 불리는 빨간(단색) 표지를 한 옛날이야기나 행사의 그림폴이와 같은 어린이용 이야기를 실었다. 대체로 우키요에 판화가 시작되는 무렵, 에도시대의 상업적 출판 인쇄가 전국시대(戰國時代) 말기 이래 행해져 왔던 활자 인쇄(고활자판)에서 목판(정판) 인쇄로 이행하던 때였다. 한 권, 또는 두 권의 형태로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만들어져, 1716~36년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윽고 검은 표지의 구로혼(黒本)이 나와 연극이나 소설류의 다이제스트, 전설 등을 가져와 재구성한 이야기를 실었고 두 권, 세 권으로 길어졌다. 구로혼보다 조금 늦게 아오혼(靑本) — 하늘의 푸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둣빛의 표지가 등장, 양쪽 표지가 사용되었다.('모에기이로(萌葱色)'라는 이 연둣빛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색되어 노란색 기묘시가 된다. 결국 같은 책이다\_역자)

그다음, 『잘 알고 계시는 상품들』의 장르로 분류되는 기묘시의 시대가 된다. 실은 작중에서는 기묘시를 「아오혼」이라 칭하고 있다. 아직 이름이 정착되지 않았던 것 같다. 문학사에서는 1775년 고이카와 하루마치(恋川春町)의 『긴킨 선생 덧없는 꿈(金々先生榮花夢)』부터 기묘시라고 부른다. 모양으로 보면 아오혼이지만 내용의 변화가 확실히 장르를 구분하는 이유가 되었다. 스즈키 책에서 「거칠게 말하면 기묘시는 아오혼이라는 구사조시를 게사쿠화한(장난삼아 쓴\_역자) 것이다」라고 명쾌하게 설명한 것처럼 이 무렵, 학식 있는 자들이 고전문학을 비속화하여 노는 것에 열중하는데 작품을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출판까지 하여 즐긴 것이다. 소일거리로 가볍게 만드는 게사쿠였다. 고이카와 하루마치가 이 기념비적 작품에 자신이 그린(고이카와 역시 화가로서도 활동했다\_역자) 유곽을 무대로 한 사레본의 삽화 그림을 유용한 것은, 스즈키 책이 말하듯이 「아오혼의 패러디로서 발상」이며, 「아동용의 아오혼이라는 그릇에 게사쿠적인 것, 어른의 웃음을 가득 담아 그 형식과 내용의 차이를 즐겼기」 때문이다.

그 이후 기묘시는, 간세이 개혁의 출판 통제(간세이 초기<1790년 전후>)로 교훈적인 작품으로 전환하여 얼마 안 있어 19세기를 맞이해서는 비극성을 강조하는 복수물이 유행한다. 이야기가 주체가 되어 분량이 늘어나고 합본으로 철학하게 되었다. 문학사에서는 1807년부터 이를 고칸(昏巻)이라고 부른다. 장정도 당시 유행한 중후한 후기 요미혼(謔本)의 양식에 영향을 받아 화려해졌고 양식뿐만 아니라, 요미혼처럼 넓은 시장을 목표로, 에도에서만 통하는 이야깃거리로 웃음을 자아내던 기묘시로부터 큰 변용을 이루었다.

이러한 역사에서 생각해도, 기묘시 『잘 알고 계시는 상품들』은 구사조시가 만들어진 에도라는 도시에 가장 주목하여 그곳의 활기를 작중에 모사하려고 한 시대의 산물이다. 간세이 개혁의 출판 통제를 신경 쓰지 않고 대외적 위협도 그다지 없었던 시대. 동서 선진국에서 흡수한 것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런던에 필적하는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급의 도시는, 도대체 어떤 공간이었을까. 작자의 눈에 어떠한 에도가 비치고 있었을까, 그 문화의 응성을 지탱해 온 출판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작품 개요 — 형태와 즐거움

책이라 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얇은 B6 반 정도의 크기(약 세로 19cm×가로 13cm)의 종이 묶음에서 미덥지 못한 표지를 넘기면, 작자가 이런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그림3). 교겐(전통극 중 하나\_역자) 무대에 교겐 의상. 지면에 쓰인 글자도 그러한 기분을 나타내고 있다.



图3 『御存商売物』一丁表  
(그림3)

「인사 올리고자 나선 이는, 봄마다 장난삼아 쓰는 책의 그림을 그리는 아무개이옵니다」— 정월, 장난삼아 쓴 책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독자 여러분에게 아직 친숙한 인물이 아니기에, 무언가 마음에 드시는 것으로 보여드리고 싶다. 「올해 처음 꿈 꾸에 신기한 것을 봐」서, 한모토(출판사)에게 이야기하러 갔더니 영업 뛰러 나가는 모습.

이 장르는 그림에도 글에도 장치가 있다. 하카마의 무늬는 전부 당시 한모토의 상표다. 작자의 머릿속은 출판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출판을 둘러싼 태평한 이야기는 이하와 같다.

「  
」안은 원문, 등장인물(출판물·출판에 관계되는 인물)은 굵게 표시했다.

**【즐거리】**

**우키요에 화가** 마사노부가 폭 엮드려 「드르렁 드르렁」 즐면서 꾸는 꿈 —.

가미가타(교토·오사카 지역\_역자)에서 내려온 **하치몬지야본**(八文字屋本, 교토의 우키요조시·세상 모습을 그린 대중소설\_역자)은 책 대여점의 큰 보자기에서 튀어나와 노천의 고서점에서 먼지를 쓰고 있던 **구다리에혼**(下り絵本, 후지와라 고제가 취향의 표지가 붙어있는 가미가타 책\_저자\_당시 교토 중심 지역을 수도로 보고 에도를 지방이라 여겨 '내려오다(구다리)'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을 붙였다\_역자)을 만나러 간다. 일찍이 자신들은 에도에서 위세를 떨쳤는데 최근 아오혼(기묘시)인지 샤레본(유곽이 무대인 책)인지 「보잘것없는 것들」에 눌러 설 곳이 없어, 지혼(에도의 그림책방에서 팔던 책)들과 함께 짓곳은 짓을 하려고 의논. **구다리에혼**은, 지혼 중에서 한물간 **아카혼**과 **구로혼**(아오혼의 전 양식)을 불러 대접하며 너희들이 관심을 못 받는 것은 아오혼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탓이니 단단히 혼내주라고 꼬드긴다. 참으로 「가미가타 사람은, 방심해서는 안된다」.

한편, 때를 만나 유명해진 **아오혼**은, 평소 어울리는 친구들과 모임을 열어 「슈코(구상의 궁리)의 의논」이나 계사쿠 이야기를 하며 하루하루를 구가하고 있다(그림4).



图4 『御存商売物』二丁裏·三丁表  
(그림4)

그의 여동생 **하시라가쿠시**(柱隠し, 가늘고 긴 우키요에)는, 오빠의 친구인 **이치마이에**(一枚絵, 배우 그림)를 연모하여 일대 고백. 「이런 인연이 종이에도 있을까」 할 정도로 깊은 연인 관계가 된다. 아오혼은 자택에서 개최한 해돋이 행사에 어째서 **구로혼**과 **아카혼**이 오지 않는 것인가 가우똥하는 사이, **하시라가쿠시**와 **이치마이에**의 관계를 알게 되어 이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길에서 우연히 친구 이시

즈리(石擲)를 만나, 그만 「함께 관음(센소지)에」 라며 요시와라 방면으로 걸음을 옮기고 만



图 5. 『御存商売物』 七丁裏・八丁表  
(그림5)

는 영문도 모른 채, 일이 성사되면 좋은 것으로 보답한다는 말을 듣고, 연인들의 눈실난실에 질려하고 있던 **하시라가쿠시**를 유괴한다. 아름다운 아가씨를 **구로혼**의 집에 데리고 가니 사정을 모르는 아내 **이로하단카**(いろは短歌, 부부싸움의 욕을 이로하 47문자를 머리에 둔 5·7·5·7·7의 상태로 계속 이어간다\_저자 단카는 '시'라는 뜻도 있지만 시장에서 소리치는 소리를 뜻하는 '단카'를 의미하기도 한다\_역자)가 질투심에 휩싸여 구로혼과 대판 싸운다. 여동생이 사라지자 **아오혼**은 「파랗게 질려(아오가 파랗다는 뜻이므로 이것도 말장난에 속한다\_역자)」, **난노이치다이** **이햏케**(男女一代八卦, 점치는 책)에게 부탁하여 행방을 점친다.

그때쯤, **아카혼**은 **이치마이에**에게 **하시라가쿠시**는 「구로혼과 연애로 인해」 구로혼 집으로 도피했다고 일러바치며 아오혼도 친구인 **구로혼**과 결혼시키고 싶어 하니 아가씨와 의견을 같이해 네까짓 놈과는 연을 끊을 작정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 **이치마이에**는 아오혼과 하시라가쿠시에게 속았다고 생각해 격노한다. **요시와라 사이켄**은 구로혼과 아카혼의



图 6 『御存商売物』 十二丁裏・十三丁表  
(그림6)

간계를 눈치 채고 **아오혼**에게 집에 있으면 위험하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 **아오혼**을 자신의 집으로 피난시킨다. 「이치마이에는 젊은 혈기의 서두름」, 「결투하겠다」며 아오혼의 행방을 찾으러 칼을 뽑아 **요시와라**로. 그때, **요시와라**에서 돌아오는 **도시센**(唐詩選, 당나라 시선집\_역자)과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가 지나가고 있었다. 분별 있는 두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내어 단념시킨다(그림6). 그리고 사정을 파악하니 악행을 일삼은 **구로혼**과 **아카혼**만이 아니라 「인기에 힘입어 유곽 출입」에 정신없는 **아오혼** 그리고 제대로 이유도 묻지 않고 「칼부림에 이르려고」 한 **이치마이에**도 함께, 「시카루('꾸짖다'의 뜻으로, 겐지 이름으로 통용되는 '히카루' 겐지의 말장난이다\_역자) 겐지라고 생각하지 말게」라고 하며 부드럽게 가르치고 타일렀다.

다. 그때, **요시와라 사이켄**(吉原細見, 요시와라 가이드북)이 「저기 아즈마야(가게 이름\_역자)의 니시키 씨입니다」하니, 예전에 알려준 적이 있던 유녀 **니시키에**가 이들을 알아보았다. 이후 손님으로서 빈번히 드나들고 그녀의 화려한 연회에서 신나게 놀게 되었다(그림 5).

그 무렵 **구로혼**과 **아카혼**은 옛날 그 대로의 동료들을 모아, 「이치마이에와 아오혼의 관계를 갈라놓자」며 작전 회의. **진코키**(塵劫記, 산수 교과서), **연대기**(年代記, 양면 인쇄의 연표), **도케하쿠닌 잇슈**(道化百人一首, 하쿠닌잇슈의 패러디)

간계를 눈치 채고 **아오혼**에게 집에 있으면 위험하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 **아오혼**을 자신의 집으로 피난시킨다. 「이치마이에는 젊은 혈기의 서두름」, 「결투하겠다」며 아오혼의 행방을 찾으러 칼을 뽑아 **요시와라**로. 그때, **요시와라**에서 돌아오는 **도시센**(唐詩選, 당나라 시선집\_역자)과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가 지나가고 있었다. 분별 있는 두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내어 단념시킨다(그림6). 그리고 사정을 파악하니 악행을 일삼은 **구로혼**과 **아카혼**만이 아



图7 『御存商売物』十四丁裏・十五丁表

(그림7)

하시라가쿠시와 이치마이에는 축복 속에서 결혼. 이번 아카혼과 구로혼의 나쁜 소행은 조잡한 꾸밈으로 마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도시센과 겐지모노가타리의 명령을 받은 쓰레즈레구사(徒然草, 중세 수필집\_역자)가 요분쇼(用文章)와 데이킨오라이(庭訓往来, 문장 습자본)들을 지휘하여 아카혼들을 교정하여 재생시켰다. 가미가타의 오래된 하치몬지야본과 구다리에혼은 낙서종이로 쓰이거나 병풍의 초배지로 사용되었다(그림7).

「이렇게 해서 구사조시 책방의 상품들은 사이 좋게 앞으로도 만만년도 번창에 번창하겠지」 — 라고 생각한 때, 마사노부 갑자기, 「이치마이에, 구사조시, 다카라부네(宝船), 도추스고로쿠(道中双六)」라며 외치는 구사조시 판매상의 목소리에 잠이 깬다. 바로 그때, 한모토 쓰루야 기에몬(鹤屋喜右衛門)이, 「새해 인사 올립니다」 하고 신년 인사차 집을 찾아왔다.

#### 4. 구성 요소 — 에도의 출판물

책방 상품들을 의인화시킨 이 작품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기를 잃은 책이 목하 인기의 책들에게 「트집 잡는」(짓곳은 짓을 하는) 이야기. 막상 줄거리에서 나온 등장인물(책과 관련되는 것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작중에 어떤 것이 등장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나열해 보겠다(이미 나온 것은 설명을 생략함).

우선, 인간.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어 책은 독자의 손에 도달한다.

- 인간 — **작자**(기타오 마사노부/작중 인물), **한모토**(쓰루야 기에몬), **행상인**(정월에 구사조시 등을 팔러 다님)

다음은 책의 종류.

- 가미가타에서 출판된 책 — **하치몬지야·구다리에혼**
- 서적 판매점에서 출판된 책 — [고전 종류] **겐지모노가타리·도시센·쓰레즈레구사/ [사전] 세쓰요슈(節用集)**
- 구사조시 관련 — [선조라고도 말할 만한 옛 조루리의 그림책화] **가라카미보시(唐紙表紙)/ [아동용 책] 아카혼·구로혼·고본(小本, 완구성이 높은 작은 형태의 그림책)/ [게사쿠] 아오혼·후쿠로자시(袋差し, 기보시의 호화판)**
- 게사쿠 — [샤레본(洒落本)] **샤레본·차보시(茶表紙)/ [샤레본과 같은 장정] 하나시본(咄本, 웃긴 이야기를 모은 책)**
- 안내 — **요시와라 사이켄(요시와라의 가이드북)**
- 예능 — [통행인의 젊은 사무라이] **고우타이본(小謡本, 노래의 유명한 부분을 골라낸 책)/ [아오혼의 유흥 연회에 있던 게이샤] 나가우타본(長唄本, 연습용 책)·오무세키(鸚鵡石, 가부**

키의 명대사를 뽑은 것) · 기다유(義太夫) 요약본 · 교겐본(狂言本, 그림이 들어간 가부키 줄거리 설명)

- 교육 — [구로혼의 동료] 진코기 · 연대기 · 도케 핫쿠닌잇슈 · 이로하단카/ [교육적 지도를 행하는 교과서(초등학교용 책, 이하 글쓰기 연습본)] 고조소로에(古状揃) · 쇼바이오라이(商売往来) · 요분쇼 · 데이킨오라이
- 점 — 난노이치다이핫케

다음은 그림 종류.

- 우키요에 관련 — 이치마이에 · 니시키에 · 하시라가쿠시 · 이시즈리(흑백을 반전시킨 것) · 산문에(三文絵, 조잡한 상품) · 우키에(浮絵, 서양적인 원근법을 사용한 그림) · 마메에(豆絵, 완구용 그림)
- 주술적인 그림 — 오쓰에(大津絵, 도카이도의 오쓰에 역참에서 팔리던 소박한 그림) · 베니에(紅絵, 천연두에 용하다고 여겨진 붉은 그림) · 다카라부네(정월 2일의 밤에 좋은 꿈을 꾸기 위해 베개 밑에 두었던 종이 그림)

다음은 유희용 종이. 말하자면 종이 게임판.

- 유희 — 도추스고로쿠 · 주로쿠무사시(十六武蔵) · 몬쓰키노카미(紋付の紙, 도박용)

마지막으로 편지용 종이.

- 편지지 — 에한키리(絵半切, 아름다운 모양의 종이)

전부 해서, 47종.<sup>3)</sup> 그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작 30페이지밖에 없는 얇은 책에, 이만큼의 수를 다룬다. 게다가 각각 특성이나 향수자 등을 고려한 알맞은 모양과 배역으로 등장하여 흐트러짐 없이 하나의 세계가 구축되어 있다. 그 솜씨는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구사조시 책방의 상품들은 사이줄게」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책방 즉 에도에서 지훈(에도에서 나온 책)돈야라고 불린 그림이나 구사조시류를 파는 책방에서 제작된 것들이 대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외는 세 종류뿐인데, 인간, 가미가타에서 생산된 책과, 전문 서적을 파는 서점에서 다루는 책이다.

그러나 장사하는 인간은 물론, 후술하게 될 가미가타의 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하치몬지야본은 에도의 지훈돈야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따라서 「구사조시 책방의 상품들」에 관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전문 서적에 대해, 작중에서 겐지모노가타리가 「에조시(넓게는 그림책과 니시키에류의 총칭) · 구사조시(아카혼에서 기묘시)는, 이후 사이가 틀어졌어도 어쨌든 책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같은 종류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모두 지훈 위에서 있는 무사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왜냐하면 에도에서는 지훈돈야는, 학문적으로 훌륭한 전문 서적을 만드는 서점과는 가부나카마(막부의 인가를 받은 동업 조합)가 따로 되어 있어 큰 차이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한모토 쓰루야 기에몬은 교토의 에도점에서 시작한 노포로서 지훈돈야와 전문서적의 서점을 겸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잘 알고 계시는 상품들』은, 협의로는 쓰루야의 상품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 작품 세계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듯 쓰루야의 주인이 신년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매

3) 원칙적으로 등장인물을 헤아린 것이다. 다카라부네는 마지막 행상인의 대사 중에만 나오지만 이치마이에와 구사조시 등과 나란히 열거되어 동종의 것으로 간주하고 등장인물에 넣었다.

우 잘 어울리는 역할의 인물인 것이다.

그리고 수가 많아 모두 제시하지 못하지만, 이 작품이 언급하고 있는 인쇄·출판에 관계되는 말은 136종에 이른다. 이 책이 당시의 출판을 아는 얼마나 좋은 자료인지 보여준다. 그중에서 주목할 것은, 작품 서두에 가미가타 출신이 아카혼·구로혼을 부추길 때 꺼낸 「작년 봄에 나온 아오혼의 평판기(소개·비평을 실은 것)」이다. 거기서 이어지는 아오혼과 동료들의 월례회 장면에서는, 등장인물이 서명이나 작자명을 차례차례 열거하며 지금 기사쿠에서 무엇이 재미있는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마치 「아오혼 평판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아 본 작품에 끼친 영향이 엿보인다.

그 평판기라는 것은, 기묘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언한 『기쿠주소(菊壽草)』(1781). 문예 유행의 중심에 있던 오타 난포(大田南畝)가 쓴 책이다. 히야마 준이치(檜山純一)가 말했듯이 배우 평판기의 패러디로, 기묘시를 배우에 빗댄 것이다. 의인화의 방법과 작자가 꿈을 깨며 끝난다는 것이 본 작품의 힌트가 되었을 것이다.<sup>4)</sup> 난포는 이듬해 간행한 기묘시 평판기 『오카메하치모쿠(岡目八目)』에서, 1782년 간행 중에서 『잘 알고 계시는 상품들』에 「아오혼 중 가장 뛰어남」이라는 최고 위치를 부여하여, 「고금의 걸작」이라고 평했다.

## 5. 의인화의 묘기

작자는 어떠한 작품·작문으로 「고금의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은 작품을 만들었던 것일까. 기본이 된 의인화부터 살펴보자.

예를 들어, 주인공 아오혼의 등장 신(그림4). 제일 오른쪽에 앉아 있는 아오혼은 전형적인 통인(通人, 에도의 교양인이자 멋쟁이\_역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유행하는 검은 하오리와 혼다아타마 헤어스타일. 상투를 가늘고 높게 올린 모양. 문자 그대로 입언저리에 댕진을 대고 「우쭈거리며(댕진을 대다와 일본어 발음이 같다\_역자)」 담뱃대를 들고 폼을 잡고 있다. 그 모습은 좋으나 어디까지나 재생지로 만들어져 있기에, 옆에 앉아 있는 호화판 후쿠로자시도 우아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팔의 문양에 「아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 소매에는 그 책의 실제 형상이 그려져 있다. 독자는 이를 보고 어떤 책인지 잘 알 수 있으므로 그것도 재미있는 장치이다.

이렇게 의인화에는 배역의 묘미뿐만 아니라, 의상, 모습, 거동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배려가 엿보인다. 특히 볼 만한 장면이 많은 것은, 아름다운 다색판화 우키요에 종류이다. 같은 그림에서 등을 보이고 앉아 있는 배우 이치마이에, 왼쪽에 서 있는 소녀는 방에 걸려있는 것처럼 심플한 표장이 입혀진 하시라가쿠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유녀 니시키에가 그것에 해당한다.

오쿠보 준이치(大久保純一)가 지적했듯이, 이치마이에는 호소반(약 세로 33cm×가로 15cm), 미인화는 오반(약 세로 38cm×가로 27cm)이 정형이다. 교덴 기묘시 『에도 자만 명산물(荳土自慢名産杖)』(1805)에, 「배우 그림은 두 장에 16문, 구사조시는 두 권에 18문, 오반 니시키에는 20문」으로 가격이 나와 있다(『우키요에 출판론』2013). 배우 그림이 8문, 기묘시 두 권이 18문, 오반의 니시키에가 20문. 그 크기와 가격에 따라서 통인 아오혼이 훌쩍 반했는

4) 「『잘 알고 계시는 상품들』과 평판기(『御存商売物』と評判記)」 『아오야마어문(青山語文)』 24, 1994년 3월.

데도 초연한 최고 위치의 유녀에 니시키에의 이름을 주었고, 호소반의 이치마이에와 방을 장식하는 하시라에반(세로 70cm×가로 12cm 정도)의 가늘고 긴 하시라가쿠시를 연인으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미남자 이치마이에의 기모노가 흰색인 것은 배우 그림의 배경이 당시 일반적으로 하얗기 때문이다. 시바이 공연 때만 「한 때 유행」 물인 배우 그림의 성질은 혈기 있는 젊은이라는 인물 조형을 반영하고 있다. 스즈키 책이 지적했듯이 정면에서 그린 그림에는, 왼쪽 팔에 「하야시」의 인장이 있어, 당시 인기를 모으고 있던 가쓰카와 순쇼(勝川春章)의 배우 니가오에(초상화\_역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장치이다. 또한 도리이 기요나가(鳥居清長)와 이소다 고류사이(磯田湖龍齋)의 미인화로 인기였던 하시라가쿠시는 아름다운 소녀로, 「연지를 아끼지 않고 한층 더 눈에 띄는」 니시키에는 에도를 대표하는 화려한 의상을 입은 미인 요시와라 유녀에 견주고 있다.

그들의 묘사가 주의 깊은 것은 당시 높은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키요에는 오랫동안 손으로 색을 입혔고 이후 조금의 색판을 이용해 채색했었으나, 1765년에 화려한 다색판이 사가판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이 무렵에 「에도의 명물」, 「전국에서 에도 그림이라 칭찬하는」 상품이 되었다. 아울러, 당시의 우키요에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그것은 미인과 배우야말로 주된 제재였다는 것이다. 현대에는 우키요에라고 하면,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齋)의 커다란 파도가 그려진 「가나가와 오키나미우라(神奈川沖浪裏)」(후지산 36경)나 우타가와 히로시게(歌川広重)의 「도카이도 53역참(東海道五十三次)」 등을 예로 들기 쉬운데, 이들의 등장은 1830년대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한 배역에는 당시 주목받는 인물을 모델로 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겐지모노가타리와 도시센이 칼을 빼 들고 달려가는 이치마이에를 발견한 것은 요시와라의 「오기야(扇屋, 가게 이름\_역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스즈키 책이 지적하듯이 유녀 니시키에의 주위에는, 요시와라 유곽 오기야 우에몬(宇右衛門)을 상기시키는 철부채를 세 개 동그랗게 나란히 한 무늬가 배치되어 있다(그림5, 도코노마에 있는 베개). 작자의 동생 산토 교잔(山東京山)이 쓴 수필 『구모노이토권(蜘蛛の糸巻)』(1846)에 의하면, 당시 보쿠가(墨河)라고 불린 오기야의 주인이 유명한 학자를 초대해 유녀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하나오기(花扇)는 유학자 사와다



圖8 『御存商売物』十二丁表 (그림8)

도코(沢田東江)가, 다키가와(滝川)는 일본학자 가토 지카게(加藤千蔭)가 가르쳤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하여 통인들에게 사랑받은 『도시센』과 유녀의 객실 장식으로서 자주 놓여 있던 『겐지모노가타리』에 빚댄 것은 실로 정교하다.

게다가 작자 마사노부는 이듬해 「청루명군자필집(靑樓名君自筆集)」이라는 우키요에를 그렸다. 그림에 등장하는 유녀가 직접 여백에 찬사의 글을 적은 것이 자랑으로, 역시 하나오기와 다키가와가 나란히 중국풍과 일본풍의 글을 게재하고 있다.<sup>5)</sup> 이 「청루명군자필집」을 출판한 사람이 작중에서 요시와라 사이켄을 연기하는 쓰타야 주자부로(蔦屋重三郎)이다. 요시와라 사이켄의 의인화도 명장면 중 하나이다. 당시 요시와라 사이켄의 독점 판매처였던 쓰타야의 상표를 문양으로 달고 그에게 어울리는 배역으로 나온 것이다(그림8).

이렇게 세세한 것은 이야기를 읽고 난 후에는 필요 없겠지만, 작자와 지식과 정보를 공유

5) 사토 유키코(佐藤至子) 『산토 교덴(山東京伝)』 미네르바쇼보(ミネルヴァ書房), 2009년

하는 층의 독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놀이가 되며 오늘날로서는 에도 문화를 아는 귀중한 정보원이 되는 것이다.



图9 『御存商売物』四丁裏

(그림9)

「실내의 책들이 서로 마주하여 있는 장면이 많아서 삽화 그림의 변화가 부족하다」고 논했다(『기묘시해제』1972).

확실히 작중 이야기에 관계되는 스무 그림 중, 열다섯이 실내, 그 안에 등불이 나와 밤을 나타내는 것도 일곱 그림이 있다. 그러나 그려진 배경도 책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장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까. 책이 활약하는 장소는 원래 실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 작품의 취향이 이전 작품의 답습이라는 것, 등장인물의 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야마모토 하루후미(山本陽史) 「산토 교덴 『잘 알고 계시는 상품들』을 둘러싸고(山東京伝『御存商売物』をめぐる) 『메이카이대학 외국어학부 논집(明海大学外国語学部論集)』13, 2001년 03월). 그러나 이 작품이 책을 유형화하여 등장인물을 조형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미 때가 묻은 종래의 작품을 근거로 한 것이야말로 의미가 있고 유형화한 책이기 때문에 표정이 부족하며 그림에 그려진 것 같은 얼굴이 붙어있는 것이다. 책의 모든 것을 보



图10 『御存商売物』三丁裏・四丁表

(그림10)

## 6. 그림을 읽기 위해서

그림의 아이디어나 특성을 살펴보자. 오타 난포가 「빈틈 없다」고 칭찬한 것은, 하나시본이 해돋이 행사에서 재주를 부리는 그림(그림9). 장지에는 「이 책을 빌려 가신 분은 빨리빨리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아림」이라고 적혀 있다. 종종 책방 주인이 책의 반납을 요구하며 쓰는 문구가 마치 훌륭한 서예처럼 방의 장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작자는 시각상으로도 책에 대한 상세한 것까지 즐길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책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특성은, 이 작품을 해독하는 중요한 열쇠다. 예를 들어 일찍이 모리 센조(森銚三)는 이 작품을 「기묘시계의 획기적 명작」이라고 평하면서도

여주는 것에 준한 유형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이 작품의 취지와 그것의 표출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 장의 마지막으로, 구사조시의 그림의 특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안젤라 드라간(Angela Dragan)의 「산토 교덴 『잘 알고 계시는 상품들』의 말과 이미지(山東京伝『御存商売物』における言葉とイメージ)」(『에도의 에혼』2010)는 유감스럽게도 오독과 오해가 여기저기 보여 참고문헌으로서는 추천할 수 없으나 그 안에 제시되어있는,

그림이 문장에 따라 있는 것, 문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지적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하시라가쿠시가 사랑하는 이치마이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장면(그림 10). 그림은 「유비키리」— 자신의 결의를 나타내기 위해 칼로 눈부시게 새끼손가락을 잘라 떨어뜨리려는 여인과 그것을 저지하는 남자의 그림. 이치마이에가 배우 그림의 진가를 발휘하여 가부키처럼 미에(눈에 띄는 표정이나 큰 동작으로 연기하는 것\_역자)를 취하고 있다. 한편, 문장은 간절하게 호소하는 장황한 7·5조의 대사로, 같은 마음이 되어 가는 이치마이에가 「소봉서」라는 종이의 질에 빗대어 「놀랄 정도로 보풀이 일어서」— 등줄기를 짜릿 짜릿하게 만들어, 「대연애(오이로고토)」(연애와 다색판화를 같이 말하고 있다\_저자)(둘 다 일본어 발음에 ‘이로(색)’가 겹치는 것을 이용한 것\_역자)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써놓았다. 여기에 극적인 유비키리의 설명은 전혀 없다. 그림과 문장은 다른 일을 묘사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함께 그들의 사랑의 시작과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림과 문장은 단순히 설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각각의 세계를 융합하는 것보다 풍요로운 세계를 형성하는 것도 구사조시 중에 자주 이용되는 표현 방법이다.

덧붙여서, 일본에서는 문장을 세로쓰기로 하는 습관이 있어 옛날 두루마리 그림도 지금의 일본 망가도 시선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 불타오르는 두 사람의 장면에서도, 작자가 마지막에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준비한 하인이 왼쪽 아래 준비되어 있다. 일본인은 의식하지 않는 시선의 움직임이긴 하지만, 그것을 계산하여 작자가 그림을 더해 놓은 것이다.

## 7. 웃음의 장치 — 문장을 해부하다

다음으로 문장의 아이디어를 살펴보자. 이하, 기묘시의 본분인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을 추출해 보았다. 그러나 어디서 웃어야 하는지, 또한 그 분류도 어려운 일이다. 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고 지금은 그 형태를 소개하겠다.

말로 웃기는 부분은 46곳, 그중에 가벼운 어구로 웃음을 주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주된 종류를 세 가지 들어보면, 우선 책의 특징을 사용한 것. 예를 들어 노점에서 팔리지 않고 가게 앞에 놓여 있던 구다리에흔이 몸에 붙은 먼지를 털며 이야기를 한다. 또는 구로흔과 아카흔의 작전 회의에서 진코키에게 「이거, 진코야, 계산 틀리지 않게 부탁해」라고, 회계 역을 시키는 종류이다. 후자는 에도식의 산술 교과서인 진코키와 사람 이름의 「진코(진공)」를 지구치(음은 비슷하나 뜻이 다른 말로 대입하는 언어유희\_역자)로 맞춘 기법이다.

이 지구치도 다양하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 장황하게 지훈을 훈계하는 겐지모노가타리의 대사, 「반드시 꾸짖는 겐지라고 생각하지 말게」. (겐지모노가타리의 주인공 ‘히카루’ 겐지의 이름과 ‘꾸짖다’의 일본어인 ‘시카루’를 대입시켜 발음으로 말장난 한 것임\_역자)

그리고 지구치의 한 종류로서 이름을 살린 농담도 눈에 띈다. 아카흔은 술을 마시면 바로 얼굴이 빨강게(아카\_역자) 된다, 새빨간(아카\_역자) 거짓말을 하고, 큰 창피(아카\_역자)를 당한다는 종류. 지구치 외에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유치한 말하기, 유행어 말하기, 지저분한 말하기와 같은 것이 있다.

다음은 조금 오래전부터 사용된 장치를 들어보겠다. 첫째로, 거짓 어원 해설이다. 아카흔 이래 구사조시는 아동용의 교훈적인 그림책이라는 표면상 원칙을 내세워, 일부러 거짓의 어원을 나타내 웃게 하는 전통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하나시본이 해돋이 행사에서 모두를 웃

게 한 장면에서, 「이야기가 있다면 해돋이 기다리는 밤」이라며, 원래는 마주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로 삼는다는 속담을 변환시킨 종류로, 여섯 군데가 있다.

둘째로, 작자 운신의 같은 종류 열거하기. 전통 연극풍의 7·5 조로, 연결되는 말을 가케 고토바(하나의 말에 둘 이상의 뜻을 갖게 하는 수사법의 일종\_역자)의 요령으로 구사하여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예를 들어, 하시라가쿠시가 사랑을 고백하는 문장. 「노베에 자란 고키쿠이나, 괴로운 이 미노카미(의미가 이종으로 사용된 곳에 밑줄 표시\_역자)」라며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노베」는 「들판」과 「코푸는 종이」, 「고키쿠」는 「송이가 작은 국화」와 「다도에 쓰이는 종이」, 「미노카미」는 「나의 신」과 「미농지」를 의미한다. 설득하는 말뿐만 아니라, 언저리에는 10종의 종이 이름이 예시되어 있다. 이 외에, 겐지모노가타리가 권의 제목(겐지모노가타리에는 총 54첩으로 각각의 제목이 있다\_역자)을 사용하여 설교하고 있다.

세 번째로, 이 시기 계사쿠에서 즐기던 핵심 찌르기 수법. 일반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구멍(맹점)을 지적하여 웃음을 자아낸다는 것이다. 오타 난포가 「뛰어나다」고 칭찬한 것은 그림10 중에서, 왼쪽 아래에 주인의 일이 끝날 때까지 줄면서 기다리는 하인 산문예를 「100에 32장의 남자」라고 설명하는 부분. 당시, 동전 100 문(옛날 돈의 단위\_역자)을 동전 꽃이에 모을 때, 96개로 100 문으로서 취급했다. 100 문이라면, 3 문의 그림 33매 살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96 문으로는 32장밖에 살 수 없다. 거기서 1장의 차이가 웃음의 원인이 되었다.

네 번째로, 에도시대와 일본 고전문학의 상식으로 웃는 부분. 당대 이야깃거리를 세 가지 들어보면, 먼저 도케 핫쿠닌잇슈. 「우리 아이들 즐겁게 지내도록, 의논합니다」가 있다. 이것은 교호(일본의 연호\_역자) 때 곤도 기요하루 이래, 종종 만들어진 『도케 핫쿠닌잇슈』의 제 1수, 핫쿠닌잇슈(백 명의 가인이 와카 한 수씩 뽑은 것을 모은 책\_역자) 천지천황가의 패러디 「가을 들녘 말리기까지 좋은 날씨를 우리 아이들 편안하게 살도록」을 근거로 하였다.

다음은 아오혼과 결투하러 갈 때 씩씩거리며 평정을 잃은 이치마이에. 머리카락을 마구 흔들리며, 평소의 하얀 기모노가 아닌 무대 의상의 모습. 나중에 겐지모노가타리에게 「제대로 사정도 듣지 않고 칼부림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혼나는 「이치마이에」는 젊은 혈기의 서두름(「하야마리」\_역자)의 사건이다. 여기서 『가나데혼 주신구라』의 엔야 한간(사실의 아사노 다쿠미노카미)의 「칼부림」(3단), 하야노 간페이(사실의 가야노 산페이)의 「하야노 간페이 젊은 혈기의 실수(「하야마리」\_역자)」(5단)가 아무래도 들여다보인다.

또 하나는, 겐지모노가타리의 훈계 중 대사, 「야마자키 학파의 훌륭한, 소라이 학파의 풍아에 못 미치네」. 역시 낡은 것을 보이는 예인데,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 주자학에 충실하여 엄격한 학문 태도의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에 대해, 오규 소라이(荻生徂徠)는 『논어』 등 성인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고대 언어 그대로 이해하려고 했다. 이 고문 사학파는 시문도 중요시 하여, 계사쿠에도 문인이 추구하는 바탕을 마련했다. 『도시센』의 유행도 소라이 학파의 발신이다.

고전문학에 관련해서는, 겐지모노가타리가 등장할 때의 대사, 「개구리가 읊니다」가 훌륭하다. 요시와라 근처에 있는 논을 지날 때 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것은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의 가나로 쓴 서문 「꽃에 우는 휘파람새, 물에 사는 개구리 소리 들으면, 살아있는 온갖 것, 언젠가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를 근거로 한 것이다. 여백을 둔 두루마리 그림책처럼 내려다보는 그림에, 『고킨와카슈』의 영향을 받은 겐지모노가타리가 오도카니 중얼거리는 부분이 무척 재미있다.

이상, 문장의 웃음을 둘러보았다. 기묘시에서 사용된 수법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여기

서 지적한 것만으로도, 『햏쿠닌잇슈』, 『가나데혼 주신구라』, 고문사학과, 『겐지모노가타리』, 『고킨와카슈』라는, 에도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을 확인했다. 구사조시를 읽으면, 당대의 사람과 시야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에도를, 그리고 그때까지 오랜 시간 향수되어온 일본 문화의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힌트를 허다히 얻게 된다. 그냥 웃기만 해서는 아까운 상품인 것이다.

## 8. 구조로부터 주제를 생각하다

『잘 알고 계시는 상품들』이 어떠한 책인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학문적 측면에서 응시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가. 1782년 에도 출판물의 여러 모습을 담은 것은 틀림없는데 구조로부터 다시 한번 깊게 들어가 보자.

이 작품은 전부 22개의 장면이 있다. 권두와 권말은 현실 작자와 한모토가 나와 이 책의 세계를 만든다. 거기에는 신춘을 의식하게 하는 대사가 있고 그들의 상품들로 에도의 경사스러운 봄을 축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는 남은 20개의 장면. 등장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은 아오혼으로 8회이다. 이어서, 아카혼·구로혼·이치마이에가 6회. 그러나 아오혼은 등장하지 않는 장면에서도, 가미가타혼과 아카혼·구로혼의 화제의 중심에 있고 이치마이에와 하시라가쿠시의 밀회도 아오혼의 집이기에, 그 존재감은 다른 것에 비해 크게 느껴진다.

특히 전반의 10개의 장면은, ① 작자의 낮잠, ② 하치문지야와 구다리에혼의 회합, ③ 구다리에혼이 아카혼과 구로혼을 부추김, ④ 아오혼과 지인들의 월례회, ⑤ 이치마이에와 하시라가쿠시의 밀회, ⑥ 해돋이를 기다리는 밤, ⑦ 아오혼과 이시즈리의 요시와라 행차, ⑧ 아사쿠사의 풍경, ⑨ 센소지, ⑩ 아오혼의 연회 놀이 — 로, ①부터 ③에서 작자가 아오혼을 생각하면서 잠들고, 악역들이 아오혼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며 작품의 틀을 정리한다. ④이후는 아오혼의 일상, 아오혼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 이동 중의 아오혼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컨대, 전부 아오혼에 관련된 것으로, 진짜 주제는 아오혼인 것이 일목요연하다.

아오혼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④의 월례회에 제시되었다. 교덴의 기묘시론으로 여겨진다.

아오혼은 귀천의 구별 없이 사람 눈을 즐겁게 하고, 처세에 능하고, 풍류를 한결같이 즐기고, 당세의 모습을 꿰뚫어 보고, 하이쿠 감성도 있으며, 털끝만큼도 빈틈도 없으며, 비 오는 날 심심할 때 볏은 콩을 먹으며 여인들과 아이들이 읽기 좋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몰두한다. 그렇지만 이 몸, 뽀내지 않고 역시 재생 종이로 월례회를 열어, 샤레본, 후쿠로자시, 이치마이즈리 등 당세 유행의 책들을 모아 새로운 책 이야기에 골몰한다.

— 아오혼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 소홀함 없이 사람을 대하는 말을 지녔으며, 멋진 통인으로 있으려는 마음가짐,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정신을 더하여, 소탈한 하이진(하이쿠를 짓는 사람\_역자)의 재능도 있고, 조금의 빈틈도 없다. 그런데도 자만하지 않고 지금도 자신은 재생지인 채로 월례회를 개최하여 아이디어에 고심한다.

전반은 통(通,어떤 일이나 사정에 밝은 것 또는 그런 사람\_역자)을 추구하는 게사쿠의 모습이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구사조시의 독자 — 실제 독자층이 변화할 것이라는 방침으로서, 여인들과 아이들에게 호소하는 — 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을 보여준 뒤, 후반은 신간을 만드는 아이디어에 얼마나 동료들과 고심하고 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스즈키 책이 지적하듯이, 게사쿠는 신분 상하를 상관하지 않는 통인 동료들 사이에서 유행한 「모임」, 즉 교카 등으로 여러 종류의 모임들을 탄생시켰다. 아오훈이 아이디어를 고심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진 ④와 ⑥의 해돋이 기다리는 밤 등은, 아오훈이 어떠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아오훈의 10개 장면을 보면, ①부터 ⑥에서, 아오훈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⑦부터 ⑩에서 그의 의식이 요시와라에 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작자의 아오훈 상인 것이다. 이렇게 구조로부터 작품의 초점이 아오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움직이는 것은 그가 아니다. 게사쿠의 본분인 웃음을 마련하는 것은, 옛날 책들이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당시 게사쿠의 자세라고 해도, 그들이 없이는 작품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을 근거로 해 전체 틀에 대해서도 재고하고자 한다.

에도 문예에서 작품의 틀을 「세카이(世界)」라고 한다. 이 세카이는 어떤 것인가. 등장 인물은 의인화한 책이므로 그것의 싸움이라면, 종종 두루마리 그림책에도 나오는 전통적인 「이류싸움(異類合戰)」의 양식이라 한다.<sup>6)</sup> 이류싸움이라는 것은, 인간 이외의 것들로 이항대립하는 — 예를 들어, 술과 과자, 민물고기와 바다의 생물 등이 겨루는 것. 그러나 주인공 아오훈은 통인의 속성을 지녔다 해도 절대 사람과 다투지는 않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동료인 이치마이에이기에 그렇게 단순한 구조는 아닌 듯하다. 잘 보면, 가미가타의 옛날 책이 에도의 책에 짓긋은 일을 벌여 동료들을 갈라놓는 고안이다. 게다가 「가미가타 출신」의 꼬드김에 넘어간 에도의 한물간 책이 지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책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것을 꾀한다고 하는 이중 구조가 되었다. 정말이지 시대극에 나올듯한 이야기지만, 그도 그럴 것이다. 하치몬지야본이든, 구로훈이든, 이치마이에든, 그들의 태생은 연극과 농밀하게 관계되어 있다. 교토의 하치몬지야는 1700년 즈음, 배우 평판기 등 연극 관련 책을 제작하며 그 옆에서 우키요조시를 만들었다. 아카훈과 구로훈도 마찬가지로, 잘 알려진 우로코가타야 서점 마고베(孫兵衛)는 연극 관련 책을 제작하고 있었고 그가 출판한 구로훈은 교겐 에훈과 같은 가부키 줄거리를 삽화로 표현한 것과 아주 비슷하다. 배우 그림 이치마이에는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전체상은 가부키와 조루리의 집안 내분이라는 느낌이 있어, 다니하시 마사히로(棚橋正博)의 「이류소동물(異類騷動物)」이라는 말로 요점을 파악할 수 있다.<sup>7)</sup>

이항대립으로서는, 가미가타 대 에도 라는 도식도 지적되어 왔다. 이 작품에서는 재미있어하며 가미가타 사람을 악역으로 만들었다. 에도내기는 아주 즐거웠겠지만, 연극 관계자들이라면 가미가타에 맞서는 기분이라고 생각해도 좋을까. 하치몬지야본이 등장하는 것은, 불과 이야기의 처음과 마지막의 2회뿐이다. 등장 횟수가 적은데도 전체를 장악하는 흑막이라는 위치는, 오늘날의 연극이나 영화에서 「특별출연」 등으로 배우 이름의 상위에 내걸리며

6) 하마다 기이치로(浜田義一郎) 「산토 교덴의 덴메이 3년의 기보시(山東京伝の天明三年の黄表紙)」 (『오쓰마여자대학 문학부 기요(大妻女子大学文学部紀要)』 4호, 1972년 3월). 야마모토 하루후미 「산토 교덴 『잘 알고 계시는 상품들』 을 둘러싸고」 (『메이카이대학 외국어학부 논집』 13, 2001년 3월) 등.

7) 본 작품 설명(『산토 교덴 전집(山東京傳全集)』 1 <기보시(黄表紙) 1>), 펠리칸샤(ペリカン社), 1992년)

관록 있는 거물 배우가 담당하는 역할이다. 하치몬지야본은 실로 그런 역에 어울린다. 에도 시대가 되어 상업 출판이 시작된 최초 수년의 가나로 쓰인 독서물은 가나조시이다. 그 후, 사이카쿠(西鶴)의 『고쇼쿠 이치다이오토코(好色一代男)』(1682) 이후, 당세 풍속에 초점을 맞춘 소설류의 책을 우키요조시라고 부르게 되었다. 사이카쿠 사후, 하치몬지야본은 우키요 조시의 중심이 되어 70여 년에 달하는 역사를 가진다. 『잘 알고 계시는 상품들』이 나온 즈음에는 거의 새로운 작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책 대여점의 보자기에서 등장해서 나와」 책 대여점의 유력상품으로서 현역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에도 구사조시류에 영향도 컸다.

예를 들어, 나쁜 계락을 꺼내는 것은 「아카혼·구로혼」(2장 앞면)이었는데,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구로혼·아카혼은 어떻게 해서라도 아호혼에게 시비를 건다」(8장 앞면), 「구로혼은 세 명에게 부탁하여, 감쪽같이 하시라가쿠시를 훔쳐온다」(10장 뒷면), 「구로혼·아카혼의 모략」(12장 뒷면)으로, 비중은 구로혼으로 이동해 간다. 하루마치의 『긴킨 선생 덧없는 꿈』이 등장했을 때 난포의 『기쿠주소』를 계기로 구로혼풍에서 기보시풍으로 대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물러난 기운의 아카혼보다 미움이 깊어진 것도 있었을 것이지만 구로혼에는 하치몬지야본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 많았다. 전체 수를 나타내는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 『구사조시 사전(草双紙事典)』(2006)의 「아(あ)」 항목에 있는 9종의 구로혼 중에서, 2종이 하치몬지야본에 의거한 것이다.<sup>8)</sup> 게다가 앞서 말한 우로코가타야는 하치몬지야본의 에도 판매처였다. 다시 말해, 구로혼은 하치몬지야본을 따르는 특성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그 영향 때문에 가미가타 출신(하치몬지야본\_역자)은 「손을 담그지 않는(가담하지 않는\_역자)」일이 가능했다. 본 작품에 등장인물은 모두 당시 구사조시와 관련된 것들로서 구성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카혼·구로혼이 다시 제작되어 「예전처럼 번창한다」라는 결말도, 당시 시장 상황을 근거로 한 것이다. 아카혼·구로혼을 다량 출판하던 우로코가타야는 이 무렵 장사가 잘되지 않아 판목을 쓰타야 주자부로부터 팔아, 그것들이 재판되었기 때문이다.<sup>9)</sup>

이렇게 보니 본 작품은, 출판 사정에 관련된 정보를 가득 담아 에도 출판업의 융성에 대한 기쁨을 체현하고 있으며 구사조시의 친구 교체와 가미가타에 대한 대항과 같은 단순한 이항대립을 그린 것이 아니다. 구사조시에 관련되는 책을 유형적으로 의인화하여 집안 소동을 흥내 내어 즐거운 이야기를 제공하며 두드러지게 아오혼이란 무엇인가를 그려냈다. 동생인 교잔의 노년에 덴메이기를 회고한 『구모노이토권』에서는 당시 유행하고 있던 「익살극」이라는, 통인들이 역을 맡아 우스꽝스러운 것을 연기하며 놀았던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은 그와 비슷한 유형의 장난이라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오혼도 샐레본도, 골계를 중시할 터인 유행의 기사쿠는, 본 작품에서 그렇게 재미있는 언동을 하지 않는다. 웃음을 제공하는 것은 옛 시절의 책이다. 여기서 작자가 세운 위치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세는나이로 스물두 살의 젊은이는 화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아직 작자로서의 명성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아오혼은 그의 분신이 아닌, 동경하는 작가들의 모습을 풀어낸 것이리라. 젊은 마사노부에게 자작 익살극 — 흥내 내기 놀이에는, 선망의 존재보다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상대(아카혼이나 구

8) 도미카와 후사노부(富川房信) 『아카시가타 호노보노 조시(明石瀉朗天草紙)』가 하치몬지야 지쇼(八文字屋自笑) 『가키노모토히토마로 탄생기(柿本人麿誕生記)』(1762)에 기초한 것 등.

9) 예를 들어, 우로코가타야 마고베 판 『우타마쿠라 에키로노 스즈리(歌枕駅路硯)』(1771)는, 1783년에 쓰타야 주자부로 판 『사이교 법사 일대기(西行法師一代記)』로서 재판된다.

로혼 등의 옛날 책들\_역자)와 노는 것이 쉬웠을지도 모른다.

## 9. 마치며 — 교덴 기묘시의 본질

앞서 언급한 『구모노이토권』에서 교잔은, 『잘 알고 계시는 상품들』을 교덴이 작자로서 첫발을 내딛은 작품이라 했다(「구사조시의 변경」). 그 이전에도 작품은 있었지만, 높은 평가를 얻어 인지도인 이 작품을 사실상 출발점으로 생각한 것이다. 교잔은 형의 화려한 기묘시 시대의 활약을 이 한 작품으로 대표한다고 보았다.

데뷔작에 그 사람의 자질이 잘 나타난다고들 한다. 교덴의 기묘시에는 다양한 면이 있지만, 세부까지 신경을 두루 써가며 빈틈없이 에도 출판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살려냈다는 것은 그가 틀림없이 작가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일전에 필자는, 교덴이 1801년에 쓴 말(馬) 모음의 기묘시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sup>10)</sup> 『잘 알고 계시는 상품들』과 동일한 분량으로, 『가나데혼 주신구라』의 세계를 흐트리지 않고 사용하여 말과 관계된 말을 늘어 358, 226종류나 풀어냈다. 『잘 알고 계시는 상품들』에서 보인 자질은 후년 박차를 더해 갔다.

이 시기의 기사구는 통의 의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통인에는 사물이나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그 장소에서 어울리는 언동이 취해지는 것이 추구된다. 스이(粹)나 이키(意氣)와 같은 미학보다도, 풍속을 비롯하여 어떤 일의 정보에 통한다는 면이 짙다. 때문에 기사구에서는 통달한 지식을 뽐내며, 때로는 그 지식이나 지식의 과다를 웃어넘긴다. 교덴의 통 의식 중에서 정보라는 지식에 대한 흥미는 이후 그의 문학적 기호로 이동해 간다.

이윽고 기묘시 장르에는 유혈이 낭자하는 복수물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문학사에서 1806년에 종언을 고한다. 교덴이 즐겁게 기묘시를 쓴 것은 1805년. 전술한 『에도 자만 명산물』이라는 잉어와 가다랑어라는 인기 생선의 신구를 축으로 하여 에도 명물에 의한 이류소 동물을 만들었다. 기묘시의 시대는, 간세이 개혁의 출판 통제를 사이에 두고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 시대를 통하여 제일선에서 활약한 대표 작가 교덴 기묘시의 최초와 최후의 중요한 작품이 에도 명물 모음이라는 점은, 아무쪼록 기억에 남겨 놓고 싶다.

에도의 새로운 봄을 축복한다. 구사조시의 본분은 그것이며, 기본적으로 독자를 즐겁게 만든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잘 알고 계시는 상품들』은 그 이상으로, 독자를 행복한 기분으로 끌어올린다. 그것은 성장하는 젊은 작가가 응성하는 도시 에도의 문화를 칭송하며 문화 조류를 견인하는 출판에 관련한 자랑스러움을 나타낸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들은 지난날의 출판물과 친숙해질 수 있었다. 다음은 꼭, 그가 당시 열중한 것(아오혼·기묘시·니시키에 등 당시 유행물\_역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성장한 어린 시절의 동료(구로혼을 비롯한 옛날 책·그림\_역자) 들을 포함하여 실제 책에 흥미를 갖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일이다.

10) 쓰다 마유미(津田眞弓) 「산토 교덴의 기묘시에 보이는 말과 『가타타즈나 주신구라』(山東京伝の黄表紙に見る馬と『仮多手綱忠臣鞍』)」(『문학(文学)』 격월간 15-1, 2014년 1월)

**부기** 원문은 쉽게 읽는 것을 고려하여 히라가나에 적당한 한자를 맞추어, 독점, 구독점을 표기했다. 또한, 당시의 읽기는, 원문에는 「아카본」, 「구로본」, 「아오본」으로 되어 있으나, 줄고 중의 설명에 붙인 히라가나에는 현재 통용방식인 「아카혼」, 「구로혼」, 「아오혼」을 사용했다. 또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오노 아야(小野文) 씨, 마쓰바라 노리코(松原 柊子) 씨, 그리고 자료 게재를 허가해주신 소장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또한 이 원고를 바탕으로 한 영어 강연 원고를 게이오대학 히요시 기요(日吉紀要) 『인문 과학』 30호에 게재했다. 구성과 제시한 정보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아무쪼록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게이오대학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 독서 가이드

「전자판 가테이분코(霞亭文庫)」(웹사이트, 도쿄대학 부속도서관·정보기반센터)

「테마별 갤러리」(웹사이트, 와세다대학도서관·고전적총합 데이터베이스)

근년, 국내외 소장 기관이 자료 화상을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다. 원본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기회를 늘리자. 그 가운데 추천하는 곳 두 군데. 이번에 사용한 『잘 알고 계시는 상품들』의 도판은 화상 공개를 앞장서고 있는 「전자판 가테이분코」이다. 서명뿐만 아니라, 「분류탐색」에서 장르별로 책을 볼 수 있다. 에도의 책은 각 장르에서 양식이 다르다. 그러한 특징을 직접 볼 수 있으니 아무쪼록 많은 에도문학의 화상을 접해보시기 바란다. 와세다대학 도서관의 「고전적총합 데이터베이스」는 고전 서적의 화상을 탐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마별 갤러리」에서 볼 만한 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컬러로 양질의 화상을 쉽게 열람하고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 또한 게이오대학의 OPAC에서도 미타 미디어센터 소장의 고전 서적의 화상이 google books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자료의 양도 많고, PDF도 다운로드 되지만, 현재는 화질뿐만 아니라, 연구에 적절하지 않은 도판이고, 게다가 가로쓰기의 책에 맞춰진 시스템으로 인해 화상이 권말부터 나오거나 해서 지금은 참고하기가 어렵다(아쉬움).

스즈키 도시유키 저 『에도 책 모음』(헤이본샤 신서, 2011년)

에도의 출판을 다룬 기묘시 『잘 알고 계시는 상품들』(쓰루야 기에몬, 1782) 해설서의 결정판.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디를 어떻게 웃어야 할지가 — 강의가 눈에 떠오르는 청중을 압도하는 말투도 느껴져 재미있다. 스즈키 씨의 헤이본샤 신서 『에조시야 에도의 우키요에 습(繪草紙屋江戸の浮世絵ショップ)』(2010)도 함께 읽어보자. 에혼과 우키요에를 파는 지혼돈야의 세계, 그리고 에도 서민들에게 출판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스즈키 씨는 18세기 후반 출판 프로듀서 쓰타야 주자부로에 해박하다. 컬러 도판을 많이 보고 싶은 분에게는, 별책 태양89 『쓰타야 주자부로의 일(蔦屋重三郎の仕事)』(1995)이 좋을 것이다. 시대의 유행을 선도한 기사쿠 작가들의 모습이나, 시대의 총아 쓰타야가 기사쿠 붐을 일으킨 이면에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일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토 유키코 저 『산토 교덴—골계샤레 제일의 작가』 (미네르바 일본평전선, 2009년)**

교덴 평전은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비교적 새롭고 종합적으로 전기를 알 수 있다. 졸업 논문에서 교덴을 다루는 학생들에게 필독서. 금욕적인 태도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교덴 상을 뒤쫓고 있기에 그 변천도 불만한 것 중 하나다. 그런데 「골계샤레 제일의 작가」라는 부제에도 불구하고, 교덴 작품의 재미에 대해서는 서술한 부분이 적은 서평이다. 재미는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 사토 씨의 방침인지도 모른다. 또한, 교덴 평전 중에서 고이케 도고로(小池藤五郎) 저 『산토 교덴 연구(山東京傳研究)』(1935년)는 역사적으로 저명한 책. 전전의 지금을 잃어버린 귀중한 정보가 가득 담겨 있지만, 사토 씨와는 달리 독자적인 견해를 강하게 서술하는 쓰기 방식이라서 읽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 제출된 학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힘을 지닌 후 읽었으면 한다.

**기무라 야에코(木村八重子) 저 『구사조시의 세계—에도의 출판문화(草双紙の世界—江戸の出版文化)』 (펠리칸샤, 2009년)**

초기 구사조시 연구의 제일인자인 기무라 씨가 말하는 구사조시의 이것저것. 200년에 이르는 구사조시의 역사에서, 재미있는 토픽이 열거된다. 아카혼·구로혼의 세계에 접해보지 않은 분은, 스즈키 주조 씨와 엮은 『근세 어린이 에혼집(近世子どもの絵本集)』 에도편(1985년)을 추천한다. 흰 쥐들의 활약(의인화시킨 동물로 시집이나 에도의 꽃구경을 어린이들에게 그림으로 설명하는 류), 모모타로, 게·원숭이싸움, 하치가즈키, 요괴... 에도의 어린이들이 즐겼던 초창기의 구사조시 세계는 지금도 즐겁다. 이 시리즈에는 가미가타 편도 있다(나카노 미쓰토시(中野三敏)·히다 고조(肥田皓三) 편). 에도와 가미가타의 작품의 다름, 도서 제작의 다름을 비교해 보자. 각각 그 지방의 기호를 알 수 있다.

또한, 초기 구사조시에 대해서는, 고이케 마사타네(小池正胤)·소노카이(叢の会)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에도의 에혼—초기 구사조시 집성(江戸の絵本:初期草双紙集成)』(국서관행회, 1987-89년), 『구사조시 사전』(도쿄도출판, 2006년) 등, 긴 세월 쌓아 올린 수많은 업적들이 있다.

**다나하시 마사히로 저 『기보시 총람(黄表紙総覧)』 (전편·중편·후편·색인편·도록편, 세이쇼도쇼텐, 1986-2004년)**

문학사에서 기보시의 시대로 불리는 1775년에서 1806년까지 32년간 간행된 구사조시에 대해, 문자 그대로, 방대한 정보를 망라한 것이다. 기보시 연구에는 절대 불가결한 기초연구서. 큰 도서관에서 열람해보자. 배열은 연대순으로 같은 해의 것은 한모토별로 분류되어 있다. 작품 하나하나의 정보를 체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모토의 동향을 뒤쫓거나 혹은 어떤 테마를 압축하여 시대를 구분하고 있어 기보시를 여러 각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다. 아직 여러 가지 발견이 가능하다.

다나하시 씨는 에도 기사쿠에 관련한 업적이 많다. 단독저서는 아니지만, 『에도 기사쿠조시(江戸戯作草紙)』(소가쿠관小学館, 2000년)에서 일본의 인어 상으로 충격을 받으면 어떠실지? 또한 『그림으로 읽는 에도의 생활 풍속대사전(絵でよむ江戸のくらし風俗大事典)』(가시와 쇼보柏書房, 2004년)은, 기보시를 중심으로 1800년 전후의 에도를 그린 도판을 집적한 것.

에도의 풍속을 알고 싶은 사람에게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사전.

#### 미즈노 미노루(水野稔) 외 편 『산토 교덴 전집』 (펠리칸샤, 1992년~)

산토 교덴의 전집. 아직 출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기보시에 대해서는 전집 1~5권으로 통독이 가능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교덴은 우키요에 화가 기타오 마사노부로서 만든 기보시가 좋은 평을 받아, 작자로서 인지되기 시작했다. 이후, 기보시가 문학사적 종언을 맞이할 때까지 주요 작가로서 활약했다. 기보시의 시대는, 간세이 개혁을 두고 전후로 큰 병용을 이루나, 그 양쪽 시대를 통해 제일선에 있던 사람이 교덴 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덴의 기보시는, 작자 교덴의 성장 과정인 동시에 에도 서민들이 무엇을 기보시에서 추구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근사한 자료군이다. 여러 시점에서 조망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우쭐거리는 주인공의 얼굴이 나중에 교덴의 자화상이 되기도 하는 기념비적 작품 『에도 우마레노 우와키노 가바야키(江戸生艶気樺焼)』 (1785), 가부키 춤이 되기도 한 근대까지 친근하게 여겨져 온 캐릭터 선혼·악혼이 등장하는 『신가쿠 하야소메구사(心学早染艸)』 (1790), 가나데혼 주신구라를 요리라는 시점으로 취해 웃음을 자아내는 『주신구라 즉석요리(忠臣蔵即席料理)』 (1794)를 가장 좋아한다.

#### 고이카와 하루마치 저 『긴킨 선생 덧없는 꿈』 (우로코가타야 마고베, 1775)

기보시는 이 작품부터 시작되었다. 원문 화상은 앞서 언급한 「전자판 가테이분코」에 있다. 일본고전문학대계 59 『기보시 사례본집(黄表紙・洒落本集)』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 1969년), 일본고전문학전집 46 『기보시 센류 교카(黄表紙・川柳・狂歌)』 (쇼가쿠칸, 1971년), 신편 일본고전문학전집 79 『기보시 센류 교카』 (쇼가쿠칸, 1999년), 『에도의 기사쿠 에혼(江戸の戯作絵本)』 1 (사회사상사, 1980년) 등에서 기보시의 대표작과 함께 읽을 수 있다. 또한 구사조시사의 흐름을 보려면 신일본고전문학대계 83 『구사조시집(草双紙集)』 (이와나미쇼텐, 1997년), 그리고 구사조시의 하나의 도달점을 알 수 있는 류테이 다네히코(柳亭種彦)의 『니세무라사키 이나카 겐지(修紫田舎源氏)』 (신일본고전문학대계88·89, 1995년)도 추천. 고이카와 하루마치의 작품에 대해서 모리 센조 『기보시 해제(黄表紙解題)』 (정·속, 주오고론샤中央公論社, 1992·94년)가 길 안내를 해준다. 개인적으로는 소바와 우동의 싸움 『바케모노 오에야마(化物大江山)』 (1776)를 정말 좋아한다. 그리고 간세이 개혁을 살펴보는 데는, 『오로콘부 히이키노 에조시(悦鬮肩蝦夷押領)』 (1788년), 『오무가에시 분부노 후타미치(鸚鵡返文武二道)』 (1789년)가 중요하다.